

사서 계속교육을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for Continuing Education of Librarians

강 지 혜 (Ji Hei Kang)**

소 병 문 (Byoung-Moon So)***

정 영 미 (Youngmi Jung)****

목 차

- | | |
|--------------------|--------------------------|
| 1. 서 론 | 4.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 도입 방향 |
| 2. 전문가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 | 5. 결 론 |
| 3. 전문가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 |

초 록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비정형 학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주도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학습공동체를 사서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해보고자 관련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외의 사서와 타 분야의 전문가학습공동체 7개의 운영 사례를 선정하여 학습공동체 구성, 운영 형식과 방법, 학습 내용, 지원 체계 등을 분석하였다. 문헌 검토와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가칭)사서학습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시사점으로 구성의 자발성과 다층위성, 학습공동체 운영 형식의 다양성, 학습 내용의 현장성을 도출하였다. 사서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로는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소속기관의 지지와 협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 확산과 환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teaching and learning paradigm shifts, the demand for informal learning is increasing. In this study, we reviewed related literature and analyzed cases of operat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in order to apply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o librarianship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even operational cases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both domestic and foreign, within the field of librarianship and other fields were select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onal format and method, learning content, and support systems were analyzed. Through this analysis, the concept of a librarian learning community was defined, and implications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a librarian learning community were derived from the spontaneity and multi-layeredness of composition, diversity of learning community operation formats, and fieldality of learning content. As a support system for the smooth operation and activation of the librarian learning communities continuity of program operation by the operating organization,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affiliated organiz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platfor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and dissemination and feedback of results for activation were presented.

키워드: 사서학습공동체, 전문가학습공동체, 계속교육, 학습공동체, 일터학습

Librarian Learning Community, PLC,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Learning Community, Workplace Learning

* 이 연구는 2023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비정형 학습지원을 위한 사서학습공동체 도입방안 연구」의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jhkang@dongduk.ac.kr / ISNI 0000 0004 6815 0603)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paul7493@kongju.ac.kr / ISNI 0000 0004 7783 7319) (공동저자)

****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omjung@deu.ac.kr / ISNI 0000 0004 6480 5668)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4년 1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4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24년 2월 8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8(1): 181-198, 2024. <http://dx.doi.org/10.4275/KSLIS.2024.58.1.181>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오늘날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교수자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모델보다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모델, 강의·이론 중심보다는 경험·실천형 교육, 교실 안의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정형화된 교육 방식에 대한 요구가 교육 전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사서와 같은 전문 분야 교육훈련에도 적용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사서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40여년간(1983년 - 현재) 사서의 전문지식 및 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 계속교육 과정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견학, 이러닝 등의 교육훈련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집합교육 외에도 재택교육과 이들의 혼합교육까지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러한 최근의 교육훈련 방법의 다양화와 일련의 변화는 COVID-19, 디지털 대전환 등의 교육 외부 환경과 도서관 및 사서 교육생의 요구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수가 정형화된 교육방식에 머물러있어 최근의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대응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비정형 학습은 전문가 교육의 현업 적응도를 높이고 일과 학습을 연계하는 선순환 모델로 사서 교육훈련을 위해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공공도서관은 지역공동체,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일정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조성되어 있다. 도서관의 공동체에 대한 역할 강화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사서는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일상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고 현장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체 조직 역량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형 학습모델이자 도서관 직원 간 공동 학습과 협업이 중심되는 '전문가 학습공동체'라는 일터학습조직을 사서 교육훈련과 연계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하여 핵심 개념과 특성을 명확하게 하고, 유사한 전문직 학습공동체 운영 사례를 통해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학습공동체를 도입한다면 사서는 일상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 경험실천형 학습을 통한 현장적응력 향상과 동시에 사서라는 전문가 집단의 공동체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 전문가학습공동체에 대한 논의

2.1 전문가학습공동체의 등장배경

전문가학습공동체는 단어 조어 과정을 통하여 공동체에서 학습공동체, 전문가 학습공동체의 순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공동체는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시작해, 목적에 따른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공동체', 그리고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의도적 조직으로써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선사 이후로 인류 사회의 발전과 같이하였다. 1950년대 초기 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Hillery(1955)는 공동체를 ‘일정한 지리적 범위 내에서 공동의 유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하고, 주요 공통 요소로 지리적 영역(geographic area),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 유대의식(common tie)을 제시하였다.

학습공동체는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학교 교육과 정해진 지식의 공급을 중시하는 산업사회에서 공동체 성원의 자발적·적극적인 성장과 계발을 권장, 촉진하는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입 과정에 등장한다. 지식정보사회 이전 다양한 공동체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인 지리적 영역은 정보통신기술의 본격적인 발달로 인해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양경남, 2004, 29), 학습공동체 안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직업적 지식과 기술의 획득과 같은 학습 요인으로 대체된다(이희수, 강숙희, 2000, 40).

또한 학습공동체의 등장은 진보적 교육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전통적 교육에서 교과서는 불변의 이론, 규칙성을 담은 지식이며, 교사중심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 반면, 진보적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다양한 경험, 활동, 생활 속에서 지식을 구성

할 수 있으며 교수자는 이를 지원하고 안내하는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황윤한, 2010). 이와 같은 진보적 교육관에서 도서관은 자료 대출과 같은 지식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서진원, 2009).

이상의 공동체 발전과정을 참고할 때 학습공동체는 산업사회 이후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구성주의로의 교육과정 패러다임 전환을 배경으로 등장하였다.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는 개인들이 연합한 하나의 ‘단위’로서, 학습이라고 하는 인간 행위를 통하여 ‘관계’가 형성되는 한편, 공동체의 구성과 유지 및 발전에 학습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정리할 수 있다(한승희, 2001, 182).

전문가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는 학습공동체의 발전된 형태로, 공동체 구성원은 대개 교사, 의사와 같이 특정 분야의 전문직이며 자신들의 전문성 신장을 공동체 운영의 목표로 한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활동은 1990년대 후반 수월성 위주의 교육이 가져온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과 중심의 집단 탐구 활동의 강화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고자 노력하며, 배운 것을 서로 공유하고 실천하거나

〈표 1〉 교육 패러다임에 따른 교육과정 패러다임과 교육과정관(황윤한, 2010, 53)

교육 패러다임	전통적 교육			진보적 교육		
		교사중심, 지식중심, 교과서중심, 이성계발			학생중심, 경험중심, 활동중심, 생활중심	
교육과정 패러다임	과학적·기술적 패러다임			비과학적·비기술적 패러다임		
	이론 중심, 모형 중심, 규칙성, 불변성			실제 중심, 실험 중심, 융통성, 가변성		
교육과정관	행동주의적 관점	관리적 관점	체제적 관점	학문적 관점	인간적 관점	재개념주의적 관점

(Hord, 1997),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하여 주변 의료진과 환자에 대해 탐구하고 의학 지식을 공부하는 모임을 구성한 예시(Grossman et al., 2001)가 대표적이다.

2.2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핵심 개념과 운영 조건

전문가학습공동체를 정의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전문가학습공동체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유사한 개념끼리 같은 열에 배열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앞에서 정리된 핵심 개념을 통해, 전문가학습공동체는 '학습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학습 보장(지원)은 물론, 공동의 결과(성과)와 실천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집단 학습(탐구)을 지향하는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다.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Wenger et al.(2002)은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설계, 내·외 구성원 간의 열린 의사소통, 다양한 수준의 구성원, 공적·사적 공간의 개발, 가치에의 중점, 익숙함과 흥미로움의 조화, 공동체의 리듬 창조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대훈(2014)은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운영 조건으로 구성원 모두의 공동체 비전 공유, 다양한 구성원,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운영 조건 및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2.3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 단계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관(官) 주도의 표준화, 문서화된 전문성이 아닌 실천 중심의 전문성을 지향한다. 또한 공동체의 형성 과정과 명칭은 선행연구별로 다르지만, 주요한 의미는 공유한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은 생태학적 순환

<표 2> 선행연구별 전문가학습공동체 핵심 개념

연구자 (연도)	핵심 개념					
Louis, Marks, & Kruse(1996)	규범과 가치의 공유	학습에 대한 집단적 관심 집중	협력	실천의 탈 사유화	반성적 대화	
Hord (1997)	가치와 비전의 공유	지원적인 환경	지원적인 공유 리더십	실천의 공유	집단 창의성	
DuFour & Eaker (1998)	미션, 비전, 가치의 공유	집단 탐구	협력적 팀	실천 및 실험 지향성	지속적 개선	결과 지향성
DuFour (2004)		학습보장	협력 문화			결과 중심
Hord & Sommers (2008)	공유된 믿음, 가치, 비전	집단적 학습	지원적 공유 리더십	학습의 적용, 개인의 실천 공유		
서경혜 (2009)	가치와 규범의 공유	학습지향성	협력	반성적 실천		
오찬숙 (2014)	가치와 비전의 공유	협력적 학습	협력적 지원, 정서적 소속감		반성적 결과 공유	

〈표 3〉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운영 조건과 내용

비전의 공유	- 공동체 유지에 있어 바람직하고 가치가 있다고 믿는 신념 체계를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공유된 비전은 학습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응집력을 형성해 지속 가능한 행동의 에너지를 일으킴
구성원의 다양성	- 구성원의 다양성은 교육 경력, 공동체 참여 기간, 연령, 성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다양한 배경과 지식을 가진 이질적인 구성원은 토론과 토의 등을 통하여 지식의 구성 범위를 확장시키고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더 나은 지식을 구성하고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정서적 유대감	- 공유된 정서적 유대감은 공동체를 지속시키며 협력을 촉진함 - 개방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를 끌어내며, 갈등을 비판적 동지애로 수용해 지식의 내면화를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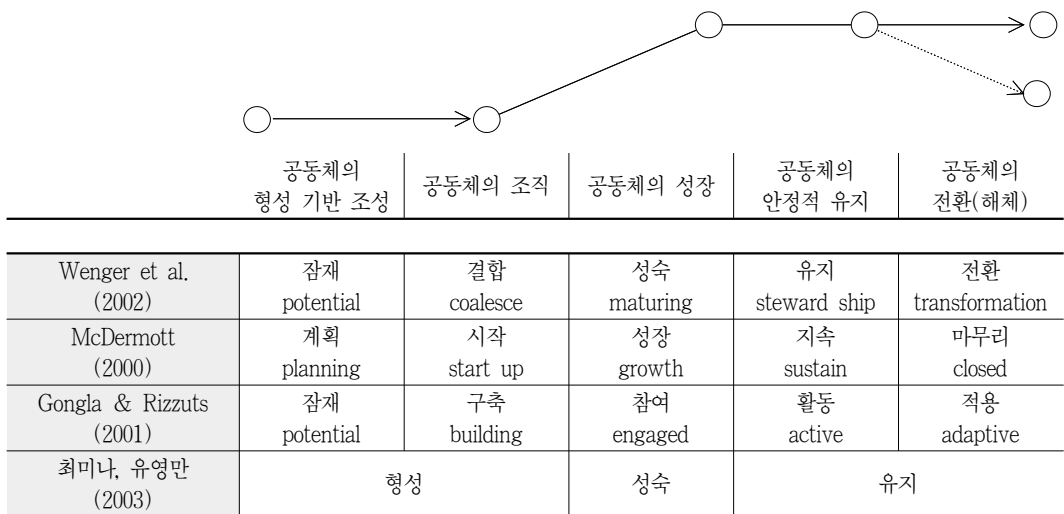
의 관점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한 Wenger et al. (2002)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문가 학습공동체는 잠재기, 결합기, 성숙기, 유지기, 전환기로 구분되는 과정을 통하여 생성과 소멸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형성 단계를 기준으로 관련 선행연구를 대비해 도식화하면 〈표 4〉와 같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은 생태학적 순환의 관점에 따라 구분한 기본 5단계를 적용하여

‘공동체의 형성 기반 조성 → 공동체의 조직 → 공동체의 성장 →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 → 공동체의 전환(또는 해체)’으로 정리될 수 있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 기반 조성’ 단계는 공동체 구성의 잠재적 필요성(needs)을 공유하는 수준이며, 미성숙하지만 공동체 본연의 가치와 그 잠재성을 발견하고 기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체의 등장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 4〉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 단계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조직' 단계는 학습의 필요·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이 실질적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비전·규범·운영 규정 등을 논의하고 기본 체계를 만들어 가는 수준으로, 구성원 간의 정서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전문가학습공동체는 '성장' 단계에서 안정적인 지속성을 위하여 학습 가치, 학습을 위한 역할과 경계 등이 분명해지며, 구성원 간의 관계 복잡성이 증가해 정서적 친밀감을 본격적으로 형성한다. 또한 공동 학습을 통하여 누적된 지식을 조직화하고 실질 성과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다. 이후 '안정적 유지' 단계는 구성원이 공동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이 활성화되어 충분하고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는 공동체 내 공동 학습활동의 결과로 고유의 지식을 창출하고 실질 성과물을 내며,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정서적 친밀감과 비전 목표 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안정성(stability)은 편안함과 방관적 태도가 공존하기에 공동체의 재인식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안정적 유지는 결과적으로 다른 학습 주제로 전환되거나 해체되는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전환(해체)' 단계는 성장과 유지와 같은 안정적인 공동체 운영 단계를 거친 후 구성원들에게 공동체의 참여, 가치, 목적 등의 공감대가 줄어드는 시점으로, 공동체의 급격한 운영 전환의 필요성과 해체에 대한 긴장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전문가학습공동체 운영 사례

3.1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사서를 포함한 타 분야 전문가학습공동체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사서들을 위한 학습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탐구했다. 사례조사는 문헌 조사와 웹 검색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사례들을 목록화했고, 눈덩이 굴리기 기법을 활용하여 현장 사서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1차로 <표 4>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 단계에서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나 전환 단계를 거친 사례 총 14개(국내 11개, 국외 3개)를 목록화하였다. 학교도서관은 연구모임 경험이 있는 사서교사 2인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여 활발한 공동체 사례를 4곳 추천받았으며, 이 가운데 공동체 역사가 오래된 곳 2곳을 목록에 포함하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였다. 공공도서관은 관장 2인과 전문가 1인의 추천을 통해 공동체 모임을 알게 되었으며, 서울 2곳과 충남 1곳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의 사례는 역사가 30년에 이르는 서울지역 1곳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타 분야 사례는 전문가 2인의 추천과 기사검색 등을 통하여 5곳을 조사하였다. 국외 사례는 총 5개의 사례를 발굴하였으나 웹으로 접속할 수 있고 자료를 공유하는 3곳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에서 추려진 사례 가운데 관종별로 '안정적 유지' 단계에 속한 사례 7개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 본 연구에 소개한다. 구산동도서

관마을 월례회의와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세미나는 담당자와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안산 사서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담당자와 유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지식센터는 연수 참여자와 의견교환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사례는 사이트, 기사, 논문을 참고하여 사례를 정리하였다.

사례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① 학습공동체 구성(구성원 소속, 자격, 분야, 인원, 인구통계, 공동체 역사 등), ② 운영 형식(온/오프라인, 공동체 학습 빈도, 학습시간 등), ③ 운영 방법(목적, 예산, 시스템, 자료 아카이빙과 활용 방법, 결과 확산 방법, 타 공동체와의 네트워크/협업 등), ④ 내용(연구 주제, (적용 학년), 교과, 주요 방법론, 환류 방안 등), 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내외 학습공동체 사례를 수집하였으나 <표 5>와 같이 대표적인 사례 7

가지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3.2 국내 사서 전문가학습공동체

3.2.1 학교도서관-안산 사서·사서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국내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는 관청은 학교도서관으로, 대표적인 사례로 안산 사서·사서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꼽을 수 있다. 이 공동체는 교육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사서(교사)들의 지속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해마다 공동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도서관, 2023). 연구 분야는 독서프로그램, 도서관 운영과 관리, 신기술 도입 등 학교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안산시의 사서교사는 총 106명의 정원(사서교사 49명, 교육공무직 57명)이 있는데 매년 80~95명(75%~89%)의 사서와

<표 5> 분석 대상이 된 학습공동체

구분	사례	특징	
국내 사서 전문가학습공동체	학교도서관	안산 사서·사서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발성과 참여 의지가 높은 학습공동체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발하게 운영됨
	공공도서관	구산동도서관마을 월례회의	<대담한 사서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월례교육으로 전체 직원이 참여
	대학교서관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세미나	30년 전통을 이어가는 서울동북부지역 사립대학교 대학도서관의 공동체
국내 타 분야 전문가학습공동체	플랫폼	지식센터 - 교사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교사가 강의를 생성하고 참여하는 연수 프로그램 플랫폼
	현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현장주도학습 학습모임	한 지역의 실무자들로 구성된 학습모임으로 해당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지식을 공유하고 습득
국의 사서 전문가학습공동체	협회	ALA(미국도서관협회)의 사서학습공동체 CORE	Core: Leadership, Infrastructure, Futures 서비스를 통해 사서 교육의 일원화
	전문 도서관	LIBER(유럽연구도서관협회)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차세대 지도자(Emerging Leaders) 프로그램	워크샵/교육/개인지도가 결합된 능동적 사서 리더십 배양 프로그램. 차세대 지도자프로그램은 1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임

사서교사가 학습공동체에 참가할 정도로 공동체가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2022학년도에는 총 89명(초등학교 47명, 중학교 24명, 고등학교 18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안산시 학습공동체는 10여 년간 꾸준히 진행됐고, 계속해서 사서교사와 사서들 간의 소통 창구 기능을 하며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모임으로 성장하고 있다.

운영은 5월~12월 중 매월 네 번째 목요일에 진행하며 예산은 따로 배정하지 않는다.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각 모임의 결과보고서를 수록하며 연말 교육지원청의 발표회에서 시행착오와 교육적 효과 등의 경험을 공유한다.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학습/연구할 목표를 설정한다. 2022년은 5개 주제 8분과 연구 활동을 진행했는데, 1분과 '주제별 독후활동 프로그램 개발', 2분과 '교육과정 연계 주제별 북큐레이션 활성화방안', 3분과 '그림책 제작', 4분과 '주제별 추천도서연구', 5분과 '미래교육을 위한 도서관속 정보활용 교육'을 연구하였다.

교육지원청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제 관련 연수를 지원하며 연구 마감 전에는 교육지원청의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의 이슈나 운영상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상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3.2.2 공공도서관-구산동도서관마을 월례회의

공공도서관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은평구의 구산동도서관마을 월례회의를 꼽을 수 있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사서들은 월례회의를 통해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학습공동체의 역사는 2015년 도서관 직원들이 매주 서평을 작

성하며 서평 회의를 진행하던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2016년 하반기부터 '대담한 사서'라는 모임에서 공통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 후 책 소개와 독서토론을 진행하며 각종 세미나와 도서관 탐방이 시작되었으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사 초청 강좌, 도서관 탐방 및 발표, 세미나, 사서의 서재 등 학습공동체로 확대되었다. 정기교육은 매월 휴관일 중 1일 진행되며 다양한 현안과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교육을 진행한다. 오픈 강의시에는 지역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사서, 작은도서관 사서와 활동가를 초대한다. 주로 도서관 자체 예산으로 강사비와 교육 참가비를 충당하며 서울시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교육을 연계하기도 한다.

학습 주제는 도서관과 관련한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공공도서관 운영 현안, 도서관의 역사, 사서가 갖추어야 할 철학 등 인문학 배양, 독서서평 작성이나 독서프로그램 진행 등 도서관 관련 실무 등이 포함된다. 외부 강사 초청은 현장에서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주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초청 강연은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힘-텍스트 정보 vs 이미지 정보(2021.05), 보도자료 작성과 홍보전략(2021.07), 도서관, 지역을 기록하다-과주중앙도서관 사례(2022.04), 사서 취업 면접 준비 & 도서관 필수 전공 상식(2022.12), 기안 및 보고서 쓰기(2023.01), 도서관 사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을까(2023.02) 등이 진행되었다.

2021년 이후 직원 교육 형식으로 교육 형태가 변화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구에 대한 사서들의 내재적 동기가 직원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며 휴관일에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중 대체 휴무를 제공하는 점이 특이하다.

3.2.3 대학도서관-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도서관 관협의회 세미나

대학도서관의 사례는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대학도서관협의회(이하 서동도협) 공동체를 선정하였다. 2023년 6월 기준 총 158차에 이르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도서관 공동체로 성장 중이다. 서동도협 회원 소속 대학(광운대, 국민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외국어대: 가나디순)의 도서관 사서가 참여 중이며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새로운 동향을 학습한다. 세미나는 기관에서 2~3명이 순회 참석하여 매회 20~25명이 참석한다. 원래 서동도협은 1994년 6월 '서울동북부지역사립대학교도서관 전산실무위원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세미나 이외에 공동사업과 친목모임 등이 진행된다.

연구 주제는 시의성 있고 각 기관에 도움이 되는 실무 내용을 위주로 결정된다. 최근 7개 세미나 주제는 (공동) 이벤트 진행 논의, 신규 콘텐츠 소개, 도서관 투어, 도서관 운영과 경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각 기관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을 포함한다. 새로운 전자자료, 서비스 사례연구 등의 연구/발표 주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논의 사항을 토론하는 예도 있다.

3.3 국내 타 분야 전문가학습공동체

3.3.1 지식샘터 - 교사의 온라인 학습공동체

지식샘터(<https://educator.edunet.net/>)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운영하는 교사들의 온라인 학습공동체이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을 시작하였을 때, 교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적응하기 위해 쌍방향 실시간 실습이 있는 연수와 소그룹의 원격 연수를 원하였다.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식샘터가 개설되었다. 지식샘터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연수 프로그램 플랫폼인데, 원격 수업에 필요한 교수-학습 방법과 자원을 제공하며, 쌍방향 온라인 형태로 운영된다. 지식샘터는 2020년 8월 오픈하였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 5,752건의 강의가 완료되었으며, 363건의 강의가 수강자를 신청받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된다.

지식샘터는 온라인플랫폼, 교과 콘텐츠 활용, 저작도구, 화상 도구, AI(SW) 교육, 교육저작권 등 에듀테크 활용 영역 중 핵심적인 6개 영역의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모든 강좌는 직무연수 형태로 운영된다. 지식샘터에서는 일선 교사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연수를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강좌 운영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강의자료 탑재, 화상강의 세팅과 만족도 등록 점검 등 강좌 운영을 사전 준비 → ② 강의 당일 신청 인원이 5명 이상이면 강의 시작 가능, 인원이 미달한 경우는 강좌 폐강 → ③ 강의 알림 문자 → ④ 화상회의 시스템(구루미 또는 Zoom)을 통해 강의 진행 → ⑤ 강좌 마무리(이수증 발급과 강의 수당 지급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학습을 원하는 교사는 주제를 골라 강좌를 수강하고 일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샘터 홈페이지는 강좌의 신청, 운영, 평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강의를 생성되고 운영되는 것뿐만 아니라, 강

의를 진행하는 지식샘이 원하는 경우 KERIS에 요청하면 강좌 종료 후에도 강의실을 계속 열어들 수 있으며, 강좌는 지식샘터에 카테고리별로 저장된다. 환류를 위해 지식샘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수강자 수와 이수자 수(출석부 캡처 화면 포함), 연수 진행 결과(프로그램 및 연수 방법, 연수 사진 등)와 연수 만족도 조사 결과(인상적인 수강 후기 포함) 등 연수 운영 주요 결과를 기술한다. 추가로 지식샘터 지원단을 통해 강좌의 품질 관리 체제를 마련하기도 한다.

3.3.2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현장주도학습 학습 모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보건복지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으로 연간 약 300만 명의 보건복지 관련 인력을 교육한다(한국보건복지인재원, 2023).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자율적으로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여러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2023년은 지역복지(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10개 모임),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10개 모임), 장애인(장애인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민관 종사자 5개 모임), 노인(노인복지현장 민관 종사자 5개 모임), 아동(아동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민관 종사자 5개 모임) 총 5개 분야의 학습모임을 지원하였다.

학습모임은 분야별 현장종사자 10명~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지역사회 내 학습 네트워크 형성과 유지를 지원하

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습모임을 운영한다. 정해진 학습 방법은 없으며, 강의, 토론, 실습, 견학 등 모임에서 학습 방법을 결정하여 진행한다. 신규 학습모임 대표자(수퍼바이저)를 대상으로 학습모임 운영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하고 최종 워크숍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3.4 국외 사서 전문기학습공동체

3.4.1 ALA(미국도서관협회)의 사서학습공동체 CORE

ALA는 2020년 9월 1일부터 Core: Leadership, Infrastructure, Futures(이하 Core)라는 조직을 신설하였는데, Core는 리더십 및 관리, 수집 및 기술 서비스, 기술의 중심 역할에서 사서 및 정보 제공자의 직업을 발전시키는 전국 협회이다(ALA, 2023). Cores는 온라인 웨비나, 코스, 이메일 토론(e-forum), 대면 포럼 및 기타 이벤트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지속해서 교육받고,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사용을 위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Core 구성원은 모든 도서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유지 관리와 혁신, 프로세스와 진행, 협업과 선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직업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접근성과 공정성(Access and Equity), 평가(Assessment), 경영과 운영(Buildings and Operations), 리더십과 관리(Leadership and Management), 메타데이터와 장서 개발(Metadata and Collections), 기술(Technology) 등 크게 6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Core는 사서 학습공동체의 층위를 다각화하여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코스(Course)는 사서 교육을 위한 6주 과정의 프로그램이다. 주제별로 1년간 세션 일정이 지정되어 있어 수강을 원하는 사서들이 자유롭게 신청하여 수강하게 된다. 한 세션당 25명의 제한이 있는데, 몇 주 전에 등록 마감일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학생들은 6주 기간 동안 코스 사이트에 연중무휴로 액세스할 수 있으며 과제 및 퀴즈 마감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진도에 맞춰 코스를 완료할 수 있다. 참가비는 Core회원인 경우 \$196.7, ALA 회원은 \$224.10, 비회원은 \$249.0으로 책정되었다. 둘째, 교실(Classroom)은 매주 라이브 가상 그룹 토론으로 구성된 3주가량 지속된다. 사서 수강생들은 수업 동안 연중무휴 24시간 수업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과제 마감일을 제외하고 자신의 진도에 맞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셋째, e-포럼(e-Forum)은 Groups.io라는 플랫폼으로 호스팅되며, 사서와 도서관 직원이 토론 목록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른 참가자와 소통한다. 주제는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모든 것들로 인사/채용, 문해력 모델, 장서개발과 도구, 참고 서비스, 전자자료의 관리 등 무궁무진하다. 마지막으로 자유로운 교육공동체가 존재하는데, ① 그룹(Group)은 일반 사서가 동료들을 만나고, 주제별 토론에 참여하고, 경험을 개발하고, 직업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모임이다. ② 섹션(Section)은 자원활동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시각과 토론을 제공한다. 섹션에서는 전문적인 교육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③ 그룹과 섹션을 대표하는 위

원회 역시 사서들이 활발하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3.4.2 LIBER(유럽연구도서관협회)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 - '차세대 지도자(Emerging Leaders)' 프로그램

LIBER(Ligue des Bibliothèques Européennes de Recherche - Association of European Research Libraries)는 유럽 연구 도서관의 주요 네트워크로,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약 40개국에 있는 450개의 국립, 대학 및 연구기관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다(LIBER, 2023). 유럽연구도서관협회는 10개의 실무그룹을 운영 중인데 '리더십 프로그램 워킹 그룹'에서 제공하는 '차세대 지도자(Emerging Leaders)' 프로그램이 학습공동체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서에게 일방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멘토와 멘티 소그룹으로 연결하여 장기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차세대 지도자(Emerging Leaders) 프로그램은 지속해서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기술을 갖춘 인력을 구축하는,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LIBER 회원 연구 도서관의 중간 관리직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도서관 의사결정권자가 되기 위한, 유럽연구도서관의 차세대 선임 리더를 위한 높은 수준의 3단계 세미나 교육과정이다. LIBER 학술회의에서 진행되는 1차 세미나에서는 지원자가 자신의 스타일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된다. 이후 20명 이상의 관장급이 멘티를 위해 본인의 업무를 1주일간 공개하고 개별학습을 진행한다. 도서관의 의사결정권자가 되면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과 해결 방안

을 모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은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배치하여 예비 지도자가 다양한 상황을 목격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일주일간의 경험 이후 프로그램 참여자는 1년간 업무 관련 토론을 진행하여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상황과 도서관 현안을 접하게 된다. 차년도 학술회의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3.5 사례 종합 분석

분석된 7개 사례에서는 2장의 <표 3>에서 분석된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운영 조건이 분명히

드러났다. 7개 모든 사례에서 비전의 공유, 구성원의 다양성, 정서적 유대감이 표출되었는데, 특별히 강조된 사례를 <표 6>으로 정리하였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운영 조건에서 비전의 공유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드러났으나, 특히 안산의 사서교사들, 구산동도서관마을 사서, 서동도협의 사서들처럼 자발적인 필요를 공유하는 경우가 눈에 띄었다. 더불어 학습공동체는 구성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해마다 다채로운 주제나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서적 유대감은 학습공동체의 명맥을 유지하는 힘이었는데, 실제로 서동도협은 스포츠 대회 등 유대감을 높이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장의 내

<표 6> 전문가학습공동체 특성 분석

구분	사례	특징	
전문가 학습공동체의 운영 조건	비전의 공유	안산 사서·사서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서교사와 사서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연구 활동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여 모임 활성화
		구산동도서관마을 월례회의	사서들의 연구모임이 확대되어 월례회의로 정례화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세미나	현장의 필요성에 의한 사서들의 모임으로 지역 중심 공동체로 성장
	구성원의 다양성	안산 사서·사서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해마다 관심 주제에 따라 공동체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져 사서와 사서교사의 다양성이 담보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현장주도 학습 학습모임	지역 내 다양한 직군의 담당자가 공동체 생성
		ALA(미국도서관협회)의 사서 학습공동체 CORE	지역, 직위, 수준과 상관없이 다양한 사서가 모여 공동체를 유지
		LIBER(유럽연구도서관협회)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매해 새로운 멘토와 멘티를 모집하여 다양한 구성원의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도록 운영
	정서적 유대감	서울동북부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세미나	협회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30년간 운영되면서 사서들의 유대감이 확대됨
		LIBER(유럽연구도서관협회)의 리더 양성 프로그램-차세대 지도자 프로그램	차세대 리더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멘토와 멘티가 1년간 협력
	차별화 특징	지식센터 - 교사의 온라인 학습 공동체	교사들의 온라인 학습공동체로 하나의 플랫폼에서 강좌 생성, 신청, 운영, 평가가 이루어짐
		ALA(미국도서관협회)의 사서 학습공동체 CORE	다층위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

용과 차별화된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형식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 단위의 학습공동체는 플랫폼으로 공동체 활동을 옮겨 진행하는 사례가 생겨, 사서를 위한 공동체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4.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 도입 방향

4.1 명칭과 개념 정의

전문가학습공동체와 관련된 문헌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교육 분야에서 이론이 정립되고 운영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일부의 연구 및 사례에서 교사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교사학습공동체’로 명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는 (가칭)사서학습공동체(LLC: Librarian Learning Community)로 제안한다.

전문가학습공동체의 정리된 핵심 개념과 이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전문훈련기관의 공식화된 사서의 교육훈련에 도입하기 위해 사서 학습공동체를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서의 전문성 신장 등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국가 수준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하여 구성원 간의 학습을 보장하고 공공의 결과 도출과 실천을 전제로 상호협력과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집단 학습을 지향하는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로 정의하였다.

앞선 문헌 분석 결과,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 형성 기반 조성 단계, 공동체

의 조직 단계, 공동체의 성장 단계,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 단계, 공동체의 전환(또는 해체) 단계의 기본 5단계로 정리된 바 있다. 본 연구는 학습공동체 본연의 가치와 잠재성을 발견하고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본격화하여 도입하기 위한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조직과 이후 단계들에 대한 시사점들은 사례 분석을 통해 주요하게 도출되었다.

4.2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4.2.1 구성의 자발성과 다층위성

학습공동체는 학습의 필요·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이 실질적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비전·규범·운영 규정 등을 논의하고 기본 체계를 만들며, 구성원 간의 정서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사서학습공동체를 구성하는 경우, 자발적인 구성을 통해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공동체 운영 시 사서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운영하며 리더십을 성장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지리적인 위치 보다는 사서들의 관심 분야나 현안에 따라 공동체를 구성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구성원 간의 정서적 신뢰와 친밀도는 활발한 토론과 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산의 사례처럼 구성원 간 내적 친밀감이 형성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운영하는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다층위의 공동체를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 ALA의 사례에서처럼 다층위로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공동체에 진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2.2 운영 형식의 다양성

이렇게 형성된 학습공동체는 시의성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만들고, 주제나 형식면에서 다양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의 사례처럼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시스템이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변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공동체는 토론이나 토의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Core처럼 Courses, Classroom, e-포럼, 무료 녹음의 형태를, LIBER의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처럼 개인지도나 액션러닝(1년간 온라인 토론을 통해 멘토-멘티 컨설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식센터의 사례처럼 교사가 주체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고 자원을 생성하며 자신의 학습을 도모하는 유형도 존재한다.

4.2.3 학습 내용의 현장성

사서학습공동체의 연구 주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은 사서 개인의 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강화에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현장주도학습 학습모임처럼 사서학습공동체도 같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 능력의 향상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ORE의 e-포럼처럼 현장 중심의 주제를 선정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식센터나 CORE처럼 공동체 참여 접근점을 단일화하여 운영 내용이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사서의 참여 편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4.3 사서학습공동체 지원 체계

4.3.1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사서학습공동체를 운영·지원하는 기관은 공동체와의 접점을 확대하여 일회성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맺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학습공동체 참여자의 다양성과 학습의 혁신성을 위해 동일 구성원의 유사 주제 사서학습공동체는 지양해야 하지만 사서 전문직 전반에 학습공동체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서학습공동체 구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4.3.2 소속기관의 지지와 협조

학습공동체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서 소속기관의 지지와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소속기관은 교육 인정이나 대체휴무제를 제공하여 사서들의 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장과 동료는 사서의 성장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지지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 LIBER의 차세대 리더 프로그램에서는 관장이 멘티에게 시간을 쏟을 수 있고, 또한 멘티가 자관을 떠나 1주일간 훈련받을 수 있는 모기관의 협조와 지지가 동반된다. 즉 사서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사서가 일터에서 일상적이면서 지속적인 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협조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3.3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사례에서 사서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교육지원청은 학습공동체의 주제 관련 연수를 지

원하고 있었다. 사서학습공동체와 같이 전문 영역의 학습공동체의 경우, 학습 내용 중 고도로 전문화된 주제나 학습공동체 구성원만으로 학습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 멘토링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기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학습공동체에 참가하는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 연수도 필요하지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같이 학습공동체의 대표자(수퍼바이저)와 같이 일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운영하는 것도 학습공동체의 이해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4.3.4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서학습공동체 운영의 수월성과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 구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식샘터와 같이 개인 스스로가 학습공동체를 유연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사서학습공동체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면 지식샘터와 같은 학습공동체 운영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화된 학습공동체 유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플랫폼의 기본적인 기능에는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운영, 성과물의 축적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4.3.5 활성화를 위한 성과 확산과 환류

사서학습공동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입 시기부터 학습공동체 운영에 대한 성과 확산과 운영 개선을 위한 환류가 필요하다. 사서교사학습공동체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은 학습공동체 운영 마감 전에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의 이슈나 운영상 논의해야 하는 내용을 상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내 학습모임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종 워크숍에서 학습모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방법은 면담이나 토론,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수렴된 의견은 다음 회기의 사서학습공동체 운영 시 반영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전문가학습공동체와 같이 일상에서 주도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일터학습조직을 사서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어떻게 도입하여 운영할지,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그 해답을 관련된 문헌과 국내외 운영 사례 분석에서 찾았자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의 핵심 개념과 특징, 형성 단계를 파악하였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학습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형식과 방법, 지원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를 '(가칭)사서학습공동체'로 명명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 공유, 구성원 간의 학습보장, 공공의 결과 도출과 실천, 상호협력과 지속적인 환류 등의 핵심 개념을 포함하여 집단 학습을 지향하는 사서를 위한 전문가학습공동체로 정의하였다.

7개의 사서 및 타 분야 전문가학습공동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사서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시에는 구성의 자발성과 다층위성, 학습공동체 운영 형식의 다양성, 학습 내용의 현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도출했다. 또

한 사서학습공동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지속성, 소속기관의 지지와 협조,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성과 확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서학습공동체를 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여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도서관과 사서의 특징적인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영 기간, 규모, 횟수 등 운영 방식을 포함한 세부적인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물론 프

로그램 시행 전에는 연수 시간 인정 등의 제도 마련, 활동비 지원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의 운영기관의 실질적인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사서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사서학습공동체 운영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방식의 구체적인 효과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는 추가적인 과제를 많이 남겨둔 채 마무리되었지만, 교육 분야를 제외한 전문가 집단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공동체를 제도화하여 도입하고자 시도한 것에 깊은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2023). 학교도서관. 출처: <https://www.goeas.kr/goeas/na/ntt/selectNttList.do?mi=11475&bbsId=5951>
- 김대훈 (2014). 교사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한 지리교사 전문성 발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지리교육.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서경혜 (2009).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교사학습공동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교원교육연구, 29(2), 49-76. <http://dx.doi.org/10.24211/tjkte.2009.26.2.243>
- 서진원 (2009). 교육방법으로서의 구성주의와 구조주의의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81-92. <http://dx.doi.org/10.16981/kliss.40.4.200912.81>
- 양경남 (2004).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지향한 초등학교 경영 방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전공.
- 오찬숙 (2014). 교사학습공동체의 개혁확산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이희수, 강숙희 (2000). 평생학습능력으로서 정보문해 개념의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성인교육학회, 3(2), 177-212.
- 지식샘터 (2023. 10. 10.). 출처: <https://educator.edunet.net/>
- 최미나, 유명만 (2003). 지식창출 및 공유전략으로서의 실행공동체(CoP: Communities of Practice) 발전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9(4), 177-208.

- 한승희 (2001). 평생학습과 학습생태계. 서울: 학지사.
- 황윤한 (2010). 학습의 기쁨을 주는 교수·학습 패러다임적 전환. 전북교육, 49, 53-61.
- ALA (2023). Core: Leadership, Infrastructure, Futures. Available: <https://www.ala.org/core/>
- DuFour, R. & Eaker, R. (1998).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at Work: Best Practices for Enhancing Student Achievement. Bloomington: Solution Tree Press.
- DuFour, R. (2004). What is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Educational Leadership, 61, 6-11.
- Gongla, P. & Rizzuto, C. R. (2001). Evolving communities of practice: IBM global services experience. IBM Systems Journal, 40, 842-862.
- Grossman, P., Wineburg, S., & Woolworth, S. (2001). Toward a theory of teachers community. The Teachers College Record, 103, 942-1012. <https://doi.org/10.1111/0161-4681.00140>
- Hillery, G.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Hord, S. (1997).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Communities of Continuous Inquiry and Improvement. Austin: Southwest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
- Hord, S. M. & Sommers, W. A. ed. (2008). Lead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Voices from Research and Practice. Thousand Oaks: Corwin Press.
- LIBER (2023). LIBER Leadership Programmes Working Group. Available: <https://libereurope.eu/working-group/liber-leadership-programmes-working-group/>
- Louis, K. S., Marks, H. M., & Kruse, S. (1996). Teachers’ professional community in restructuring school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3(4), 757-798.
- McDermott, R. (2000). Knowing in community. IHRIM Journal, 1-12.
- Wenger, E., McDermott, R., & Synder, W. M. (2002).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A Guide to Managing Knowledge. Boston: Harvard Business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san Office of Education (2023). School Library. Available: <https://www.goeas.kr/goeas/na/ntt/selectNttList.do?mi=11475&bbsId=5951>
- Choi, Mina & You, Yeong-Mahn (2003). Case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CoP (Communities of Practice) as a strategy for creating and sharing knowledg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9(4), 177-208.
- Educator (2023. 10. 10.). Available: <https://educator.edunet.net/>

- Han, Song-Hee (2001). *Lifelong Learning and Learning Ecosystems*. Seoul: Hak Ji Sa.
- Hwang, Yoon-Han (2010). A paradigm shift in teaching and learning that brings joy to learning. *Jeonbuk Kyoyuk*, 49, 53-61.
- Kim, Dae-Hoon (2014). *Professional Development of Geography Teachers through Participation in Teacher Learning Community: Grounded Theoretic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 Lee, Hee-Soo & Kang, Sook-Hee (2000).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information literature as lifelong learning a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3(2), 177-212.
- Library Act. No.19592.
- Oh, Chan-Sook (2014). *Case Study on Innovation Diffusion Process of Teacher's Learning Community*.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Seo, Kyoung-Hye (2009). Teacher learning communit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9(2), 49-76. <http://dx.doi.org/10.24211/tjkte.2009.26.2.243>
- Suh, Jin-Won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ructivism and the structuralism as the educational methods. *Th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81-92. <http://dx.doi.org/10.16981/kliss.40.4.200912.81>
- Yang, Kyoung-Nam (2004). *Study on the Direction of Elementary School Management Based on Communitarian Liberalism*. Doctoral dissertat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